이 영화는 미국의 전설적인 힙합 그룹 NWA의 전기를 다룬 영화이다. 이지 이, 닥터드레, 아이스 큐브 세 멤버를 중심으로 한 NWA의 탄생과 해체, 그 속의 역사적인 일화들까지 다루고 있다. 음악계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실존인물이며, 레코드사의 실명 역시 언급된다.

1980년대 중반 당시 미국 정부는 ‘마약과의 전쟁’을 선포한 후 강력한 마약단속정책을 펼치는 중이었다. 이 정책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었고, 이들이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빈민층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. 또한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했다. 수용한계를 넘어선 재소자 때문에 관리 부실로 갱단간의 전쟁, 마약유통, 살인 등 미국의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에 존재하던 인종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고, 특히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다.

이 영화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 당시 대부분의 흑인들이 받은 흑인차별대우를 보여준다.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은 단지 밤늦게 흑인 여럿이 모여있다는 이유로 진압수색을 하고 흑인 운전자였던 로드니 킹을 집단구타하여1992년 로스엔젤레스 폭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 흑인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과잉단속은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#BLM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.

반면 NWA는 로스엔젤레스의 슬럼출신으로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받는 부당대우들을 랩음악으로 표현한다. 다소 거칠고 직설적이라 라디오 송출금지 판정을 받지만 1000만 엘범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당시 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. 특히 그들이 경찰로부터 받았던 부당대우를 표현한 곡인 FUCK THE POLICE가 빅히트를 쳤다.

이 영화를 보고난 후, 나는 인종차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. 물론 이 영화는 내가 해외에서 겪었던(정확히는 내 한국인 친구들이 겪었던) 인종차별보다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이다.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있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캠페인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.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크고작은 인종차별들이 일어나고있다. 전에 잠시 일하던 공장에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는데, 분명히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하고있었다. 인종차별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. 세계 어느 나라던 인종따라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, 즉, 인류애만이,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하는 가장 큰 가치이다.